

- I. 이 책자는 國土統一院의 政策調查研究計劃에 依據한 特殊課題 研究報告書임.
II. 收錄된 內容은 刊行處의 意見을 받드시 反映하는 것은 아니며 統一問題에 關聯된 研究에 資料로 提供되는 것임.

分斷國調查研究

平和定着面서에의 韓國과 獨逸의 差異点 分析

研究執筆責任 朴 東 熙

(略歷) 西獨門大學校에서 法學博士學位取得(1971)
建國大學校 法經大 助教授 및 副教授(1971~)
司法考試委員(1976~)

刊行責任 金 德 信 (政策企劃室 補佐官)

國土統一院 政策企劃室

目 次

序 言	3
第一章 西独의 平和定着政策	6
第 1 節 아데나워의 親西方政策背景	6
(1) 第 2 独逸帝国의 对外政策	7
(2) 벨사이유 講和条約과 第 3 独逸帝国의 对外政策	9
第 2 節 아데나워의 親西方政策	11
(1) 現實을 바탕으로 한 統一政策	12
(2) 아데나워의 힘의 政策	16
(3) 아데나워 政策의 難關	22
第 3 節 브란트의 東方政策	24
第 4 節 西部独逸 国力의 限界	29
第 5 節 西独国民의 覺醒된 姿勢	35
第二章 東独의 平和定着政策	39
第 1 節 울브릿트의 政策	40
第 2 節 東部独逸의 国力	45
第三章 東西独關係의 展望	49
第四章 南北韓의 平和定着	51

第五章 南北韓斗 東西独間의 比較評價 55

* 要 約 文 65

序 言

戰後 分斷된 南北韓과 東西獨間的 關係를 볼 때 冷戰狀態에서 統一을 이루지 못 했다는 데는 共通點을 갖고 있으나, 平和定着面에서는 커다란 差異點을 나타내고 있다. 東西獨이 分斷된 후 오 늘에 이르기까지 兩獨關係가 어떤形式으로든지 去來되고 있었거나 去來되고 있는데 比하여 南北韓의 關係는 回數를 헤아릴 程度의 왕래를 除外하고는 냉정 일변도였다는 점이다. 따라서 東西獨의 關係發展은 紛爭緩和의 段階가 아니라 緊張緩和의 段階 였다는 것이 다.

이에 比하여 南北韓의 武力關係는 紛爭再發防止에서 紛爭緩和가 焦點 이 되어있고 現狀態로서는 緊張緩和狀態가 언제 돌아올지 미지수의 狀態다. 南北韓 UN 同時加入과 平和定着等を 前提로한 對 北傀 政策이 西獨의 對 東獨政策과 여러 面으로 유사성을 갖고 있다해 도 이는 南北韓武力衝突 再發防止를 위한 努力이며 따라서 紛爭防 止策의 手段이었지 그 以上の 것으로는 나타나지 않고 있는 實 情이다.

이에 比하여 西獨은 양獨간의 武力紛爭을 염려할 段階에 놓여 있지 않다. 따라서 對 東獨政策은 어디까지나 폭 넓은 平和擴張

을 위한 緊張緩和에 주력되고 있는 것이다.

우리는 紛爭緩和에 초점을 두고 있는데 比하여 西獨은 進一步한 緊張緩和에 주력할 수 있는 理由가 어디에 있는가 라는 의문에 對하여 한마디로 말한다면 같은 共產主義의 政治的 理念을 갖고 있으면서도 東獨은 武力侵略의 의도가 없는데 比하여 北傀는 赤化 統一을 위한 武力侵略의 野望을 버리지 않고 있기 때문이라고 말할 수 있다.

武力侵略의 野慾이 도사리고 있는 한 緊張緩和政策이 樹立될 수 없으며 西獨과 같은 同一政策 또는 그 보다 發展된 政策을 밀고 나간다고 해도 緊張緩和狀態가 南北韓間에 造成되기는 어려운 것이다. 武力侵略의 野慾이 없는 것을 前提로 한 것이 緊張緩和狀態이기 때문이다. 여기에 바로 南北韓과 東西獨間의 平和定着面의 差異가 있는 理由가 있는 것이다. 그러면 왜 南北韓의 關係는 紛爭緩和 속에서의 平和가 破壞될 威脅이 도사리고 있는데 比하여 東西獨은 緊張緩和속에서 平和가 定着되어 있는가를 살펴 볼 必要가 있을 것이다.

이를 위해서는 戰後 아데나워의 對 西方政策과 東方政策 및 -브란트의 東方政策이 어떠한가를 檢討해야하며 이어서 東獨의 政策 등을 밝혀야 한다. 아데나워는 親西方政策을 強力히 밀고 나가면

서 「힘의政策」을 遂行해 나갔으며 슈레더 外相은 東歐와의 親交
樹立과 이에따른 東獨孤立化政策으로서 「活動政策」(Bewegung der
Politik)을 遂行했고, 브란트는 東西獨關係改善을 위한 東方政策
을 펼쳐 나갔으나 그 어느 것도 平和定着을 前提로 했다는 不變
의 共通點을 갖고 있다는 것을 먼저 염두에 두고 아데나워의 힘
의 政策을 理解해야 한다.

이에대한 자세한 것은 第四章 및 第五章에서 밝히고 있다.

第一章 西獨의 平和政策

第1節 아데나워의 親西方政策背景

第2次 世界大戰으로 因하여 獨逸帝國은 敗亡하고 말았다. 남은 것이라고는 초토화된 獨逸國土 위에 獨逸民族 뿐이었다. 國土는 分斷되고 勝戰國이 모든 國家權力을 掌握함에 따라 民族의 살 길만이 至上課題로 남게 되었다. 民族自決과 獨立된 民族意志에 依한 살 길은 있을 수 없으며 오로지 勝戰國의 善心에 따른 살 길만이 있었을 뿐이다. 이런 點을 잘 把握한 아데나워는 먼저 西方과의 親分을 두터이 하는 路밖에 없다고 느꼈다.

西方의 信任을 獲得하는 前提條件은 오로지 西獨이 진정한 平和와 自由를 갈구한다는 것을 全世界가 느끼도록 해야한다는 것을 아데나워는 잘 알고 있었다. 이는 히틀러의 罪科를 말끔히 씻고 獨逸民族의 世界的 이미지를 새로이 해야한다는 當爲에서의 出發이다. 따라서 아데나워는 西獨政府樹立과 더불어 “平和와 自由속에서의 再統一(Wiedervereinigung im Frieden und Freiheit)”을 平和定着의 第一歩로 삼았으며 이런 精神을 西獨基本法 前文에다가 明文化시키기까지 했다. 이를 土臺로 親西方政策만이 獨逸民

族과 國家를 구출하는 길이라고 생각했다.

그가 親西方政策을 強力히 推進하게 된 背景은 第四章에서 說明할 現實的 國際情勢의 要求에서도 그러려니와 1, 2次 世界大戰을 通한 獨逸歷史의 教訓도 重要한 役割을 하게 되었다.

西方과의 紐帶를 無視한 1, 2次大戰 當時의 獨逸의 對外政策이 獨逸國家의 自滅을 招來시켰다는 것을 잘 알고 있었기 때문이다.

아데나워의 戰後 親西方政策을 理解하기 위하여는 먼저 1, 2次 大戰當時의 獨逸의 對外政策을 간단히 고찰할 必要가 있다.

(1) 第2 獨逸帝國의 對外政策

약 100年前인 1871年 獨逸이 統一되자 비스마르크는 現狀維持 政策이 가장 重要한 政策이라고 主張했다⁽¹⁾ 그리하여 當時의 獨逸 國境線이 滿足스럽지는 못했으나 國境線安全維持政策이 그의 第一 外交政策이 었다. ⁽²⁾

이는 곧 當時의 仏蘭西로부터의 위협에 對備한 國家安保政策과 一致되는 政策이었다. 따라서 그는 仏蘭西를 孤立시키고 其他 다른 東歐 및 西歐諸國과의 國交關係를 堅固히 할려고 努力했던 것이다. ⁽³⁾ 이는 인접 東歐諸國과의 두터운 友好的 關係없이 獨逸 第2帝國의 國家安保가 위태롭다고 判斷했기 때문이었다.

그러나 그의 親友邦政策은 國內의 거센 반발에 부딪혔다. 비스마르크 政策에 反對하는 政治家들은 獨逸도 植民地를 갖고 獨逸祖國의 繁榮이 있어야 한다는 것이었다. 이와같은 강경 政策을 主張한 人士들이 드디어 政權을 掌握(1890)하기에 이른 것이다.

이는 비스마르크가 國內反對勢力을 過少評價한 結果였다.

政權을 쥔 강경파들은 獨逸을 強大國으로 만드는데 全力을 다했다. 이를 위하여 土產品의 質을 向上시켰으며 활발히 輸出시켰다. 이뿐만이 아니라 英國에 버금가는 海上進出力을 向上시켰다. 그리고 國防力을 強化시키면서 植民政策을 試圖했다. (4)

當時의 獨逸經濟復興은 2次大戰後의 經濟復興처럼 어떤 歐羅巴國家도 따라오지 못할 程度였다.

그러나 이와같은 獨逸第2帝國의 国力向上은 世界勢力均衡(Balance of Power)에 蹉跌을 갖다 주었다. 이는 또한 비스마르크에 의하여 東西諸國과 堅固한 紐帶關係를 맺은 親交關係를 破壞시키는 結果를 招來시켰으며 孤立되었던 仏蘭西에 숨통을 터 주게 되었다. (5)

그 후 얼마안되어 1次大戰의 敗戰이라는 쓴맛을 獨逸에 안겨주었다. 世界政治舞台에서 孤立된 후 敗戰한 獨逸은 벨사이유 講和條約을 強要받았다.

(2) 벨사이유 講和條約과 第3獨逸帝國的 對外政策

벨사이유 講和條約을 締結한 獨逸은 孤立政策이 얼마나 무서운 것인가를 잘 알게 되었다. 따라서 當時의 敗戰獨逸政府는 第1次的으로 소련과의 友好紐帶를 成立시키고 親美政策을 樹立하여 美國의 支持를 얻어냈다. 이는 敗亡한 獨逸再建에 策동을 건 仏蘭西와 폴란드에 決定打가 되었던 것이다. 이런 親美, 親蘇政策을 밀고나간 張本人은 當時의 外務相 Stresemann이었다.

Stresemann 外相은 처음부터 西方勢力과 소련사이에서 勢力均衡政策을 밀고 나갔던 것이다. 그의 Balance of Palitik는 低姿勢였으나 敗亡한 獨逸을 再建하는데는 絶對的인 役割을 한 것이다.

Stresemann은 그의 勢力均衡政策이 維持되는 한 戰後 失地當한 國土를 재빨리 回復할 수 없다는 것도 잘 알고 있었다.

그러나 어느 뎨가는 西方과 소련간의 勢力均衡에 금이 가서 失地가 回復되리라고 생각하고 있었던 것이다.

獨逸은 歴史的으로 보아서 歐羅巴內에 重要な 國家이며 이를 어느 勢力이건 完全無視하면서 방치할 수 없다고 생각했기때문에 그는 이상과 같은 長期政策을 밀고 나갔던 것이다.

그러나 1920年代 終半期부터 世界經濟危難이 오고 國內政治에

混亂이 오자 극좌파의 득세로 말미암아 Stresmann의 親美, 親蘇 政策이 破壞되면서 강경 政策이 또 다시 고개를 들게 되었다.

이는 性格面에서 볼 때 비스마르크以後의 獨逸情勢와 유사함을 나타낸 것이다.

히틀러가 등장하자 비스마르크가 퇴진된 후의 獨逸처럼 自主經濟가 確立되고, 自主經濟를 바탕으로 獨逸의 再武裝이 強力하게 나타났다. 히틀러의 강경 外交政策은 國民의 絶對的支持를 얻었다.

히틀러의 강경 政策은 歐羅巴 政治판도를 뒤바꿔 버렸으며 第3 獨逸帝國이 歐羅巴를 이끄는 격이 되고 말았다.

1次大戰때의 失地를 回復한 것은 第3 獨逸帝國勢力擴大의 一部에 不過할 程度였다. 그러나 그도 역시 中國에 가서는 獨逸 第2帝國처럼 2次大戰에 敗亡하고 만 것이다.

히틀러 獨逸의 敗亡理由는 다음과같이 集約할 수 있다.

- ㉠ 소련을 지나치게 過少評價했다.
- ㉡ 英美의 英글로 색슨 國家의 共通된 利害關係를 正確히 把握치 못 했다.
- ㉢ 나치 獨逸의 国力을 지나치게 過信했다. 그리하여 不可能을 可能으로 생각했다.

특히 소련을 過少評價한 것은 소련이라는 것은 슬라브民族으로

形成되어 있는 것이 진정한 소련이며 따라서 少数에 不過하므로 이를 격퇴하기란 그리 어렵지 않다고 評價한데 기인한다.

히틀러가 独逸海軍을 增強시켜 바다를 支配하려고 한것은 結果적으로 英國을 자극시키고 말았다.

따라서 英國과의 交戰을 히틀러가 願하지 않았다고 해도 結果적으로는 英國에 도전한 結果가 된 것이다. 英國과의 戰爭을 願하지 않았던 히틀러는 英國의 利害關係가 무엇이였든가를 正確히 把握했어야했다.

이와같은 히틀러의 무분별한 政策은 美英仏을 결속시켰다. 히틀러의 또 다른 誤算은 美蘇英仏이 상호상치되는 利害關係의 衝突때문에 중국에가서는 分裂될 것이라는데 있었다. 그러나 그것은 적중되지 못했다. 그것은 히틀러의 지나친 强경책때문이었다.

第 2 節 아테나워 親 西方政策

1. 2次戰의 敗亡을 본 아테나워는 親友邦政策을 無視한 孤立政策이 敗因이라고 判断했다. 따라서 西獨이 사는길은 親西方政策밖에 없다고 結論에 到達한 것이다. 親西方政策을 위한 기초로서 그는 敗戰独逸이란 現實을 徹底히 把握한 政策이 樹立되어야 한다고 強調했다. 그리하여 그는 現實政策을 들고 나온 것이다.

(1) 現實을 바탕으로 한 統一政策

아테나워는 第1次的으로 自由를 定着시켜야한다고 생각했다.
다음 段階가 平和며 그리고 난 후 統一이라고 主張했다.
自由→平和→統一이라는 里程碑를 세운 그는 共產侵略을 방비한다
는 反共政策을 세웠다. (6)

소련은 東独占領으로 満足치 않을 것이며 그의 国力을 擴大키
위해 西獨까지 赤化시킬 것이라고 判斷했기 때문이다. 그리고 統獨
問題는 순수 獨逸人の 問題가 아니며 歐羅巴問題이며 世界政治 問
題라고 했다.

世界政治를 좌지우지 하는 소련이 共產革命을 輸出하는 膨脹主義
를 쓰고 있기 때문에 西獨安保가 威脅받고 있는 것이다. 따라서
西獨은 國家安全을 위하여 歐羅巴 여러나라와 緊密한 紐帶를 맺어
야하며 歐羅巴內의 各 國은 小國家이므로 초강대국인 소련에 單一
國家로서 對抗할 수 없고 따라서 歐羅巴가 統合되어야 한다고 主
張했다. 바로 이점이 西獨國家의 安全이며 歐羅巴 各國의 國益이
라고 생각했다.

그의 政策인 歐羅巴統合과 西獨安全을 위한 前提條件으로 西方自
由國家와의 共同外交政策이 樹立되어야 하고 西獨이 完全獨立되어야
한다고 그는 力說했다. (7)

그러한 나머지 그는 1954年 10月 23日 西方과 独逸条約 (Deutschlandvertrag) 을 締結하는데 成功했다. 同条約 第1条 2項에 主權独逸임을 밝히고 統独問題는 반드시 事前에 西独과 協商을 해야 한다고 明示했으며 (第7条), 이어서 西独聯邦基本法에 規定한 바와 유사한 自由民主主義原則下에서 統独問題가 解決되어야 한다고 되어 있다.

그리고 統独問題는 美英의 責任下에 解決되어야 한다고 뜻을 박았다. (8)

自由民主主義下의 統独이라는 独逸条約以外에 아테나위는 또한 西独安全을 위한 파리条約을 締結했다.

이 条約은 親西方政策을 위한 초석을 뜻한 것이다. 그의 重要內容은 다섯가지로 집약할 수 있다.

① 소련의 侵攻이 있을 때 加盟國家가 西独과 共同으로 防衛한다.

② NATO 및 西歐聯盟의 會員인 西独은 主權國家이다.

③ 西独은 國際政治의 客体가 아니며 主体로서 統独에 直接 關與할 수 있다.

④ 이를 西方國家들은 保障한다.

⑤ 2次大戦以後 美蘇는 超강대國으로 등장되었고 이에 따라 歐

羅巴 어떤 國家이건 政治·經濟·文化등 어떤 分野를 莫論하고 美蘇와 競争할 수 없으므로 西獨政府는 歐羅巴統合을 強力히 要求한다. (9)

以上과 같은 두 가지의 條約을 根拠로 平和定着에 힘썼다. 外部, 특히 共產 소련의 侵略紛爭가 美英仏에 의하여 保障되지 않는 한 西獨의 平和定着이란 있을 수 없다고 아데나워는 判斷했기 때문이다. 또한 西獨이 自由民主主義下에서만 統獨을 이루어야 한다고 했으므로 이를 희생시키는 前提下에서는 統獨이 이루어질 수 없다는 것을 西方으로부터 保障받은 것이다.

그의 里程碑를 보면 제일 먼저 西方統合이며 다음이 歐羅巴 安全이고 그리고 난 후에 祖國의 統一이었다.

따라서 첫 段階로 親西方政策이 굳혀져 成功되어야 한다고 했다.

1, 2次大戰 때의 歷史的教訓도 있으려니와 現實的인 世界政治를 볼 때 西獨이 最大의 富強國家가 된다해도 人口6千餘萬과 적은 國土를 갖고 있는 獨逸의 國力限界를 아데나워는 너무나도 잘 알고 있었기 때문에 親西方政策을 밀고 나갔던 것이다.

그의 親西方政策은 또한 西獨國境의 現狀維持 (Status quo) 政策이었다. 즉 現領土不可侵의 原則이었다.

그러므로 長期的인 안목에서의 統一政策이었다. 따라서 東獨을

刺戟하는 武力도발이란 있을 수 없고 이를 根拠로 平和定着을 試
圖하게 된 것이다. 따라서 그의 統獨政策은 두 가지의 拒否가
있는 것이다.

즉, 無條件統一拒否와 모든 方法과 手段을 통한 統一拒否다.

이와같은 아데나워의 原則에 대하여 與野는 完全一致된 見解를
갖고 있었다. 그러나 基民黨과 社民黨의 意見對立은 그의 實踐方
法과 手段에서 差異點을 나타내곤 했다. 基民黨은 그의 黨首인 아
데나워의 路線을 따랐다.

아데나워는 獨逸聯邦共和國이 樹立되기 前인 1945年부터 美英仏과
親密한 關係를 맺고 있었으며 특히 佛蘭西와는 더욱 緊密한 友誼를 맺고
있었다. 佛蘭西와의 友誼를 未來의 西獨外交政策의 土臺로 삼으려고 하고있었다.

아데나워는 처음부터 소련 占領地域은 長期化할 것으로 내다 보았
고 따라서 西方과의 緊密한 紐帶關係밖에 있을 수 없다고 생각했
다. 이러한 親西方政策만이 西獨에 平和를 定着시키는 原動力이
라고 그는 主張했다.

또한 西方의 團結이 소련을 움직이는 힘이 되고 그때가서야 統一
이 可能하다고 判斷했다.

아데나워는 西歐의 團結이 西歐羅巴 모든 國家가 살수있는 方策
이며 또한 獨逸이 살수있는 길이라고 생각했다.

또한 西歐의 團結은 西獨을 除外시키고 있을 수 없다고 主張했다. 西歐의 團結을 위해 그는 먼저 美國이 單獨으로 對 東歐政策을 밀고 나가지 못하도록 했으며 西獨은 勿論이러니와 西歐羅巴역시 美國政策을 支持하도록 親美政策을 펼쳤다.

이런 것들을 바탕으로 對蘇協商에 임하자는 것이 그의 東方政策이었다.

즉, 소련에 影響을 주고 壓力을 加할 수 있는 東方政策은 西方의 團結로서만이 可能하다는 것이다. (10)

(2) 아데나워의 힘의 政策

1952年 3月 소련이 西獨政府와 協商할 用意가 있다고 通告해 왔을 때 그는 바로 그의 親西方政策이 成功的으로 이끌어져 나가고 있다고 생각했다.

아데나워는 親西方政策으로 인하여 西獨의 國家安保는 確固히 되었고 西方의 團結은 堅固하여 團結된 힘을 갖고 對蘇協商에 임할 수 있다고 判斷했다. 또한 他面에 있어서 統獨은 段階的方法에 의해서만 可能하며 長期的 時日이 經過한 후에 이루어 질 것이라고 내다보았다. 아데나워는 東西의 冷戰的인 對決이 어떠한 個別的 問題에 기인된 것이 아니라 全體的인 問題에서 發生된 것

이라고 생각했다. 따라서 이와같은 全体的인 問題로 인해 發生된 東西冷戰을 緩和시키는 前提條件은 強力한 平和意志가 소련을 위시로한 共産東歐에 傳達되어야 한다고 했다.

이것이 바로 平和定着의 重要要素라고 내다 보았다. 따라서 그는 1954年 봄 다음과 같이 主張했던 것이다. 「統獨에 關한 나의 생각은 소련이 다른 問題와 關聯시키지않고 이 問題만을 單獨으로 論議할 用意가 있는지에 달려 있다고 본다.

소련은 지금 東獨을 담보물로 잡고 있으며 一般的인 東西冷戰이 해빙되었다고 판단할 때에야 비로서 그 담보물을 내 놓아줄 것이다. 지금 東西의 緊張은 절정에 達해 있다. 따라서 소련이 東獨을 해방시킬 이유가 없는 것이다」(11)

以上에서 본 바와같이 아데나워는 힘의 政策과 平和政策등 兩面 政策을 밀고 나갔던 것이다. 그의 平和政策은 東西間의 武力衝突을 豫防하는데 主力되었으며 힘의 政策은 소련을 說得, 굴복시키는데 目的이 있었다.

이를 위한 그의 原則的인 方案은 다음과 같이 集約된다.

① 소련을 위시로 하는 東歐 共産國家内の 經濟的 危機를 西方 經濟 支援으로 解決한다.

② 武力競争을 中止한다.

③ 東西冷戰에 關聯된 東西 歐州國家들의 國家安全을 保障하고
이 들 國家는 完全平等國家임을 保障한다. (12)

이와같은 아데나워의 政策은 直接的이 아닌 旋回政策이었다. 따라서 野黨人士들에 의하여 批判받은 것이다.

이에 대하여 그는 現狀維持에 대한 平和定着이 先行條件이라고 하면서 그는 直接政策에 의하여 아무 것도 이루지 못 하는 것 보다는 旋回에 의하여 目的을 達成하는 편이 좋다고 反論했다. (13)

그러나 그는 또한 對 東方政策을 積極的으로 밀고 나갈 경우 모처럼 成就시킨 西方團結에 균열이 생겨 西獨과의 友好關係가 威脅받을지도 모른다고 念慮했기 때문에 積極的인 東方政策을 이끌고 나가지는 않았다. (14)

1955年이 되자 그는 모스크바와 最初의 協商을 했다. 이는 西獨이 NATO에 加入한 後이며 NATO에 加盟함으로써 西方과의 紐帶關係는 確固不動하게 되었다고 생각했기 때문이었다.

批判者들은 소련이 1952年度에 協商하자고 提議했을 때 아데나워가 應했더라면 成功했을 것이었으나 지나친 親西方政策에만 依存하여 때를 놓쳤다고 主張하고 있다.

아데나워의 힘의 政策은 當時의 鄧로스의 힘의 政策과 一致되는 것이었다. 아데나워 힘의 政策은 窮極的으로 소련을 위시로하는

東歐 共產諸國의 團結을 紛碎하거나 또는 이로 인하여 自中之亂이 發生될 것이라고 믿었던 것이다.⁽¹⁵⁾ 따라서 同一한 見解를 갖고 있는 美國에 의하여 아데나워의 政策이 積極支持를 받았던 것이다.

아데나워의 힘의 政策은 할슈타인 原則을 탄생시켰다. 이 原則은 統一政策의 補助政策이 있다. (16) 이러한 아데나워의 강경 政策은 東西冷戰과 平行을 이루었다. 그런 結果 東西獨關係는 惡化되었다. 그렇다고하여 두 獨逸間에 武力衝突이 있을 程度의 惡化는 아니었다.

東西獨의 武力衝突은 곧 第3次世界大戰과 直結되는 것이라고 兩獨이 생각하고 있었기 때문이다.

이 점이 바로 南北韓間의 關係와 本質的인 差異點이 되는 것이다. 어쩔든간에 東西獨의 關係가 아데나워의 힘의 政策으로 말미암아 鈍化되고 있었던 것만은 事實이다. 그의 강경 政策은 스탈린 死亡後에도 變하지 않았다. 野的인 批判者들은 스탈린 死亡後의 소련의 對西方政策은 緩和政策이므로 西獨도 이에 임해야 한다고 했으나 아데나워는 이를 수긍하려고 하지 않았다. (17)

후르시초프의 緊張緩和 政策은 소련 自体 内部의 弱化때문에 나온 위장전술이며 중국적으로는 共產蘇聯의 目的을 達成시키기 위한 戰略이라고 그는 경고했다. (18)

軍備縮小를 부르짖고 있는 소련에 대하여 그는 「平和政策을 위
장한 소련의 平和攻勢는 앞으로 더욱 가열될 것이 豫想된다. 이
는 西独의 굳건한 与論을 混亂시키고 西方團結을 교란시키려는 전
술이다.」라고 덜레스 美国務長官에게 보낸 1955年7月25日字 書
信中 경고했다. (19)

아데나워의 平和定着戰略은 따라서 西方依存에 의한 戰略이었다.
그러나 소련이 이 戰略의 受取人이라는 것을 잘 알고 있었기
때문에 소련을 無視하지는 않았다. 따라서 그는 独逸問題에 대한
解決은 西方3大國에만 責任이 있는 것이 아니라 소련에게도 있다
고 했다. 그리하여 그는 始終一貫하여 4大強大國의 責任을 力說
했던 것이다. 이는 道德的인 武器를 갖고 소련에 压力을 加한
것으로 評價되고 있다.

西独의 富強된 經濟力과 親 西方政策의 成功等의 強力한 背景을
갖고 對·蘇政策을 썼던 아데나워는 1957年度에 이르자 成功的인
것같은 印象을 받았다. 独蘇關係가 改善되어 個別的 問題解決의
실마리가 나타나는 듯 했기 때문이다. 이러한 評價는 西独駐在 소련
대사에 親西独派인 Smirow가 任命되었다는 것과 1957年2月7日
아데나워가 불가닌 大使를 直接接見하여 独逸問題에 대한 具體的인
論議가 있었다는 것 때문이다. (20)

그러나 불가닌은 소련의 對 西獨政策이 變하지 않았음을 強調 했다. 즉, 統獨問題에 關해서는 兩獨이 直接協商해야 한다는 것이 었다. 그러면서도 經濟·文化 및 學術分野에 關해서는 보다 緊密한 改善을 할 것을 表明했다. (21) 그리하여 1957年7月23日 이 에 對한 實務者 會談이 開催되기까지 했다. 또한 아데나워는 同 年 5월에 平和意志를 나타내는 한 가지 方法으로 소련에게 武力 行使를 포기할 準備가 되어 있다고 宣言했다.

즉, 그는 함부르크 基民黨 全党大會에서 「東西獨이 統一되면 強 力한 軍事國家가 되지 않을가라는 염려를 소련이 하고 있다면 우 리는 이런 염려를 해소시키는 方案으로 東獨地域을 非武装 地域化 할 수 있다」고 宣言했다. 이러한 아데나워의 宣言은 얼마후 소 련으로 부터 反應을 나타 내게 했다.

그리하여 소련은 이런 宣言의 背景과 真意가 무엇인가를 把握키 위하여 스미르노브 (Smirnow) 大使에게 타진케 했다. (22) 당시의 國際政治狀況은 특히 美國의 對 蘇政策은 강경에서 緩和로의 轉向 시기였었다. 이렇다 할 成果는 없었으나 東西간의 軍備縮小會談이 활발히 論議되고 있었고 또한 美國이 相當한 部分에서 양보할 準備를 갖추고 있는듯 했다. 아데나워의 判斷에 따르면 美國이 世界平和를 위하여 無條件 양보할 것 같지는 않으나 世界平和의

代價로서 상당한 양보도 할 것 같았다. 따라서 그는 美國만 依存할 수 없다는 생각하에서 「獨逸問題를 조용하고 진지한 手段을 갖춘 外交的方法을 통해 소련을 說得시켜야 한다. 이에 어느程度成功하면 獨逸問題를 4大強国会談에 회부시켜 最終的인 結論을 구해야 한다.

最終決定을 위한 作業이 우리에 依하여 事전에 準備되어야 하며 그렇지 않으면 진정한 平和가 올 수 없다」고 力說하여 對蘇 강경자세에서 緩和에로의 變化의 징조를 나타냈던 것이다. (23)

(3) 아데나워 政策의 難關

50年代末에 이르러 美國의 世界政策 變化가 뚜렷하며 소련과의 現狀維持 政策이 갖 들기 始作하자 아데나워의 힘의 政策은 퇴색하기 始作했다. 1961年 伯林장벽이 쌓여졌을 때 美國이 방관적인 소극자세로 나온 것은 바로 이를 實証한 첫번째의 例에 該當된다.

따라서 아데나워는 美國보다도 仏蘭西에 더욱 依存하여 이를 補充하려고 했다. 또한 당시의 슈레더 外相은 「生動政策(Die Politik der Bewegung)이라는 對 東方政策을 밀고 나갔다. 이는 키신저 - 브란트 大聯政까지 펼쳐나간 政策으로서 체코의 드부 策 首相이 소련에 의해 실각될 때까지 연명하였다. 슈레더의 東方

政策인 「生動政策」이란 東歐社會主義 個個 國家들의 國益에 西獨이 편승하여 이를 全獨 利益에 유용하자는 것이었다. 이는 東歐 共產主義 國家들의 個別的 利益 특히 經濟 援助 및 西獨의 產業技術 支援을 提供함으로써 兩國의 關係改善을 試圖하고 이들과의 親交를 利用하여 西獨의 統獨政策을 支持토록 하자는 것이었다.

東歐와의 關係가 豫想대로 進行되는 경우는 다음과 같은 것을 기대할 수 있다고 아데나워 政府는 생각했다.

- ① 東西 힘의 關係에서 西方에 有利한 것을 기대할 수 있다.
- ② 獨逸統一을 가능케 할 것이다.
- ③ 中共勢力의 膨脹으로 인하여 소련이 歐州의 安全을 希求하게 되며 따라서 西歐와 타협할 것이다.

이와같은 評價를 내리고 있었기때문에 西獨政府는 統一의 날이 오는 것을 대비키 위하여 할슈타인 原則을 더욱 徹底히 施行키로 했다. 따라서 60年代 中半까지도 美蘇의 緊張緩和政策에 계동을 걸곤 했다. 진정한 東西緊張緩和은 東西獨의 問題解決없이 成功할 수 없다는 것이 反對理由였다.

그러나 60年度末 키싱거 - 브란트의 大聯政이 樹立된 후부터는 世界政治情勢의 흐름이 슈레더의 「生動政策」을 容納하지 않을 것이라는 느낌을 갖다주었다.

西独의 对東歐 經濟政策은 經濟侵略政策이며 소련을 위시로 하는 東歐社会主義의 分裂政策이라는 소련의 거센 반발에 直面하게 되었다.

특히 드브체크 체코 首相의 自由化政策도 西独의 經濟侵略政策이었다는 호된 非難을 소련으로부터 받게 되었다.

他面에 있어서 체코가 소련의 侵略을 받는데도 美国을 爲始로 하는 西方이 방관만 하고 있던 것을 西独은 똑똑히 보았던 것이다.

따라서 키싱저 - 브란트 大聯政은 西独의 國際社会 孤立을 두려워하게 되었던 것이다.

이러한 나머지 西独政府는 東西独의 統一問題는 東西緊張緩和을 위한 前提가 아니라 東西緊張緩和 속에 包含되는 一部로 간주토록 政策을 變更했다. (24) 바로 이러한 政策變化가 브란트의 70年代 東方政策으로의 始發이 된 것이다.

第3節 브란트의 東方政策

브란트의 東方政策은 基民党的 강경 政策과는 判異한 政策이었다. 東独의 要求를 어느 程度 受諾하고 소련의 利益에 양보를 하는 선에서의 西独利益을 追求하는 政策이었다.

이는 그가 野党時節에 主張한 対소 및 對東獨 接近政策을 實戰에 옮기는 政策이었다.

브란트는 60年初에 당시의 바르비서관과 함께 接近을 통한 段階的 統獨方案을 主張했었다.

이를 要約하자면

- ① 소련을 위시로한 東歐의 利益을 생각지 않는 아테나위식의 一方的 統一方案은 成功할 수 없다.
- ② 東獨의 利益을 무시한 統一方案도 成功할 수 없다.
- ③ 解放後 斷切된 兩獨政府間의 接觸을 通해 양보하면서 統獨을 모색해야한다. (25)

이와같은 브란트의 見解는 東獨의 主張에 많은 양보를 가하게 되었다.

첫째 東西獨基本條約을 1972年 탄생 시켜 東獨의 主張대로 東西獨이 UN에 同時加入했고 東獨의 主權을 尊重하게끔 되었다.

여기에서 西獨이 얻은 것이 있다면 同條約이 規定한 東西獨民의 相互往來의 激增과 文化, 體育, 經濟去來의 增加 및 通信交流의 激增등이다.

또 다른點은 兩獨逸이 完全獨立된 두 개의 國家라는 것을 明文化 하지 않았다는 것과 西伯林通行에 關한 어느 程度의 保障이다.

元來 東獨은 完全 獨立된 두 개의 獨逸을 主張하고 있었으므로 이를 明文化시키지 않은 것 自体가 成功的이라는 評價가 내려진다.

非政治分野의 활발한 相互交流는 두 獨逸의 緊張緩和와 平和定着에 重要な 役割을 한다.

이런 意味에서 먼저 接觸을 통해 두 獨逸間에 平和를 定着시키고 그 후 統一을 이루겠다는 브란트의 政策이 歡迎받게 된 것이다.

브란트는 東獨과의 基本條約을 締結하기 前에 이에대한 美蘇의 양보가 先行條件이라는 것을 잘 알고 있었다. 이 외에도 美國의 힘을 利用 美國이 소련을 說得토록 했으며 宗主國인 소련이 東獨에 壓力을 加하도록 했다. 이에대한 基礎作業으로 브란트 政府가 끝없는 平和意志를 소련을 爲始로 하여 東歐共產國에 나타냈다.

이에 대한 첫 作業으로 東歐 및 東獨에 대한 敵對表示를 삼가했고 할슈타인 原則을 포기 했다. 또한 소련의 利害에 금이 가지 않도록 對 中共 外交政策도 消極性을 띠었다.

그리고 東方政策의 成果를 위해 제일 먼저 소련과의 成功的接觸을 試圖 했다.

이것이 結果를 맺어야만 對 東獨 및 기타 東歐共產國家와 어떤 外交的 成果를 成就할 수 있다고 判斷 되었기 때문이다. (26)

브란트의 활기있는 平和定着을 위한 東方政策 역시 아메나워 政

策의 기반속에서 이루어진 것임을 否定할 수 없다.

그것은 첫째로 아데나워의 親西方政策이 確固하여 西方側의 도움을 얻기가 쉬웠다는 點이다.

또다른 面에 있어서는 아데나워가 政府樹立 以後 양차대전을 통해 全世界國家에게 준 侵略 및 好戰國家라는 인상을 종식시키기 위한 꾸준한 努力이 成功되어 東歐共產國家에게도 좋은 인상이 定着되었기 때문이다.

실사 아데나워가 強力한 反共政策 및 힘의 政策을 밀고 나갔으나 侵略國家는 아니며 好戰國家도 아니라는 인상을 東歐에 定着시키는데 成功한 것은 어느 누구도 否定못한다.

브란트 역시 이를 認定하면서 아데나워 탄생 100주년 記念日에 그의 政治業績을 찬양한 바 있다. 다만 아데나워와의 差異가 있다면 東獨要求가 政治的 面에 該當되는한 양보할 줄 모르는 反共政策을 維持한 아데나워에 比하여 이를 어느程度 양보하면서 積極 東方政策을 밀고나간 것이 브란트 였다는 點이다.

이 외에도 또 다른 이유가 있다면 브란트가 政權을 인수하기 전후 하여 東西關係가 데탕트의 潮流속에 파묻혀 있어 強力한 아데나워의 힘의 政治보다는 接近을 통한 統獨方案인 브란트의 政策이 適格이었다는 點이다.

基民党政策을 批判하는 人士들은 첫째, 基民党政權이 經濟復興과 親西方政策의 成功에 대해 지나치게 自信心을 갖고 있었다는 점
② 他國의 利害關係 특히 소련의 利益을 너무 무시했다는 점등이
다. (27)

브란트의 東方政策이 東西獨統一政策에 基本的인 原則을 變化시킨 것은 아니다. 다만 아데나워때부터 있었던 對 東獨 및 東歐共産國과의 接觸을 보다 활발하게 했을 따름이다.

따라서 親西方政策 역시 繼續 持續되고 있는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아데나워의 對東獨 및 東歐政策이 直接攻擊戰略이었다면 브란트의 東方政策은 旋回攻擊戰略이라고 評價내릴 수 있다.

따라서 브란트의 東方政策이 소련 및 東歐共産諸國과의 緊張緩和에 기여 하고 暫定的인 統一포기 및 4大強大國協定에 따라 西伯林通行에 對한 比較的保障을 얻음으로써 戰後 Bonn 政府가 最初의 自主外交를 樹立했고 平和定着에 기여했다고 評하기도 한다. (28)

兩獨間의 심각한 紛爭이 줄어들었고 非政治分野의 接觸이 활기를 띠었기 때문이다.

西獨政府가 樹立된 以後 이상에서 본 바와같이 親西方政策, 힘의 政策 및 70年代의 東方政策을 이끌고 나갈 수 있는 原動力은 經濟復興때문이다.

이는 어느 누구에 의해서도否認되지 않는다. 아데나워도 親美, 親西方政策의 絶对성과 美国依存 外交政策을 主張하면서도 經濟政策은 그와 다르다고 했다.

즉 外交政策에 관해 美国과 西方間에 論難이 있을 수 없으나 經濟政策에 관해서는 분류가 있을 수 있다고 했던 것이다.

第4節 西部 独逸国力의 限界

西独의 国力限界가 把握되어야 한다.

西独의 平和定着을 위한 外交政策이 国力을 바탕으로 하고 있기 때문이다.

아데나워이건 브란트 또는 現首相 슈미트이건간에 西独의 国力限界를 徹底히 把握한 바탕속에서 外交政策을 樹立하고 있기 때문에 이에 대한 檢討는 상당한 意義가 있고 西独国民에게도 이 들 음, 양으로 啓蒙하고 있는 実情이다.

西独은 国土面積으로 볼 때 中間国에 不過하다. 그러나, 戦后 經濟復興 특히 重工業部分의 發達로 強力한 輸出国이 되었고 通貨安定으로 인하여 世界政治속에서 強力한 国家로 부상되어 있다.

그러나 世界政治를 左右할 수 있는 国力에는 미달되고 따라서 초

強大國이 될 수 없다.

하지만 強力한 軍事力을 갖고 있어 西歐羅巴에서 相當한 影響力을 과시한다. 그러면서도 역시 초강대국가와의 軍事力과 比較하여 볼 때 自体防衛에 充分한 軍事力을 갖고 있는 것도 아니다. 이와 같은 理由에서 西獨은 NATO와 密接한 關係를 맺고 있는 것이다.

더구나 西歐內에서 西獨에만 美軍이 있는 理由도 그리고 美軍駐屯의 莫大한 經費를 西獨이 負擔하는 까닭도 西獨國力의 限界를 認識했기 때문이다. (29)

또한 西獨이 國防力을 갖고 있다해도 侵略하지 않는 軍隊라는 平和意志를 나타내고 西方과의 團結을 위해 西獨軍隊의 作戰權을 NATO에 委任하고 있다.

또한 이런 狀態는 어느 西獨國民도 反對하고 있지 않으므로 長期化 할 것으로 보인다. 이와같은 西獨의 軍事, 經濟 및 國土의 面積等 國力誇示의 바탕을 勘案할 때 西方 특히 美國에 依存하지 않을 수 없다는 結論이 내려진다.

美國에 依存하는 것도 또한 限界가 있다는 것을 絶對多數의 西獨國民들이 잘 認識하고 있다.

依存의 限界란 第3次 世界大戰이 發生되었을 때이다.

이런 境遇는 戰爭主戰國인 美蘇보다도 弱小國인 獨逸이 보다 크고

絶對的인 被害를 보게 된다는 것이다.

美国이 西独보다 많은 被害를 보면서 西独을 구출할 수 없다는 것은 자명한 事實이기 때문이다. 여기에 바로 对西方 또는 对美 依存의 限界가 있다는 것이다. 따라서 西独政府는 西独国民의 利益을 保護하기 위하여 東西緊張緩和政策에 積極 기여해야 한다는 것이다.

東西緊張緩和 政策속에 東西独平和共存이 内包되어야 한다는 것은 再言을 要하지 않는다. 이와같은 것을 根拠로 하여 西独의 支配与 論과 爲政者들은 東西紛争이 있는 境遇 이것이 어떻게 發展되던 相關없이 西独에 有益토록 유도해서는 안된다는 것이다.

그것은 第3次大戰이라는 엄청난 結果를 초래하거나 또는 西独이 孤立될 危險을 内包하고 있기 때문이다.

양대 진영의 緊張緩和와 平和共存을 위하여 西独의 一方的 政策만 가지고는 不充分하다.

相對國도 同一한 政策으로 応해 나와야한다. 그러므로 西独은 東西紛争을 平和的으로 解決시키기 위해 積極性을 나타내고 있다.

2次大戰때 상실한 独逸領土의 반환요구는 現狀維持 政策에 위배되며 現領土의 不可侵性이 尊重될 때에 한하여 緊張緩和가 維持될 수 있는 것이다. 따라서 브란트 政府가 아데나워의 領土回復政策을

포기 한 것이다.

2次大戦後 喪失한 失地를 回復시키려는 慾望이 強하면 強할수록 平和慾望을 포기하고 戰爭危險을 負擔해야 한다는 것을 西独國民을 잘 認識해야 한다고 경고되기도 했다. (30)

이런 原則은 正反對호 對西独에도 適用되는 原則이다.

즉 西独領土 역시 不可侵性的 尊重을 받고 있는 것이다.

領土不可侵이란 無條件 領土不變更原則과 一致되는 것은 아니다.

領土不可侵이란 다만 그 國家意思에 反해 變更시킬 수 없다는 말이지 意思의 同意下에 領土가 變更되었을 때는 이에 該當되지 않는다는 것일 뿐이다. 決定的인 것은 意思에 反했는가 또는 아니었는가 일 뿐이다. 西独의 政客들은 西独의 国力限界를 잘 把握하고 있다. 따라서 平和政策의 限界를 뚜렷이 認識하고 있는 것이다.

領土의 安全이 平和定着의 가장 重要한 先行條件이라고 말하면서 領土의 變更과 不變更는 西方의 利害關係도 考慮되는 範圍에서 決定지어져야 한다고 생각하고 있다.

西独政府가 樹立된 以後 오늘에 이르기 까지 어느때를 莫論하고 自力에 의한 自主外交政策을 樹立할 수가 없었고 西方과의 緊密한 關係속에서만 可能했다는 것이다.

이는 西独의 国力限界때문이며 또한 西独의 安全을 위하여는 이

런 方法밖에 없다는 것은 너무나도 자명하다는 것이다. (31) 西方과의 結束을 通해 西獨의 安全을 기하는것이 統一에 앞서는 것이기 때문이라는 것이다.

소련에 의하여 威脅을 받고 있는 곳이 西獨이라는 것을 생각할 때 充分히 이해할 수 있다.

西方과의 結束을 위하여는 西方依存 특히 對美依存度는 보다 強해야하고 이를 甘受해야 한다는 것을 西獨國民은 잘 알고 있다.

이러한 나머지 아데나워 時代였건 브란트 時代였건 強力한 經濟的인 바탕을 갖고도 政治的 主導權을 掌握한 적이 없으며 掌握하려고 하지도 않았다. 그리고 또한 政主的 自主를 부르짖는 政客이나 또는 政派가 있으면 즉시 매장되곤 했던 것이다.

앞에서도 간단히 밝힌 바와같이 經濟政策面에서는 이를 달리한다. 經濟政策面에서는 西方과의 紛爭이 可能하며 不可避하다는 것이다. 그러나 이도 또한 軍事衝突에 까지 이르러서는 안된다는 것이다. 따라서 여기에도 限界가 있다는 것이다. 外務經濟政策面에서도 이와같은 政治的 判斷을 찾을 수 있다. 西獨은 이미 1950年代 初부터 對外經濟援助政策을 樹立했다.

經濟援助政策 또는 經濟支援政策은 西獨平和政策에 가장 重要政策이라고 判斷했다. 西獨政府가 重要視하는 對外經濟政策은 두가지로

集約된다.

하나 는 通貨安定政策이요 둘은 對外經濟援助政策이다.

通貨價值安定維持는 外國市場에서의 市場競争能力을 向上시키며 이에따라 獨逸貨幣의 政治的影響力을 強化한다는 것이다. (30)

對外經濟援助政策은 最善의 國家投資라고 한다. 이는 西獨工產品의 輸出機會를 增大시키고 原資材導入을 용이하게 한다는 것이다. 뿐만아니라 戰前의 獨逸에 對한 나쁜 國民感情을 해소시키는데 絶對的인 役割을 하며 극한적인 第3世界와도 國益을 위한 妥協이 可能하다는 것이다. (31).

이와같은 政策, 對蘇 및 對東獨政策에도 適用되어 兩獨間의 平和定着에 기여하고 있는 것이다.

東西獨間의 經濟協力에서 볼 때 그의 저의가 다른面에 깔려 있다. 즉, 西獨의 立場에서는 東獨과의 經濟協力에 의하여 西獨의 經濟的 利益을 追求하려는 것이 아니라 平和定着을 통한 統獨方案의 일환으로서의 저의가 있는데 비하여 東獨은 東獨內의 經濟的 利益을 위한 저의가 있을 따름이다. (32) 그러나 東西獨의 經濟去來에 限界가 있는 것도 事實이다.

그것은 西方 및 소련의 利害關係때문이다. (33)

以上の 것이 東西緊張緩和와 東西獨平和定着을 위한 西獨의 國力限

界이며 手段과 意義인 것이다.

第 5 節 東西獨國民의 覺醒된 姿勢

戰後獨逸은 南北韓의 境遇와 마찬가지로 30年以上의 分斷狀態를 維持하고 있다. 이리하여 分斷된 祖國속에서 社會生活을 해야 한다는 獨國民에게는 常識화된 것이다.

실사 그들이 北과 體制가 다른 두 獨逸內에 거주한다 해도 한 民族이라는데는 疑가 없다. 이는 東獨內에 거주하는 몇몇의 共產극렬분자를 除外하고 是多數의 東獨人에게도 例外일 없다.

이는 東獨內의 國籍法이 東獨內에 거주하는 東獨人만이 共產東獨의 東獨人이라고 規定하 있다해도 여전히 마찬가지인 것이다.

이는 世代와 世代를 隔어 이어져왔던 歷史的 명맥때문이다.

獨逸民族은 30年以 祖國이 分斷되어 있는 것이 오랜 歲月이었 다는 것을 잘 알기 서도 現 國際政治狀況에서 볼 때는 결코 오랜 歲月이 아나 것도 잘 認識하고 있다.

東獨이 두개의 獨逸을 強調하는 理由도 이상과 같은 東西獨國民 의 뿌리깊은 信念을 불식시키기 위한 것이라고 一部에서는 評價하고 있다.

이미 앞에서 簡略히 指摘한 바와 같이 現實을 正確히 把握한 나머지 分断意識의 두개의 獨逸意識化한것도 拒否할 수 없다. 따라서 獨逸 때는 全体獨逸을 뜻 하는 것이 아니라 西獨인 獨逸聯邦共和國만을 西獨國民들이 뜻하는가 하면 東獨國民 역시 共產東獨만을 지칭하는 것으로 되어 있다.

全体國家, 全体民族 意識이 구세대보다 신세대에게서 弱化되어 있는 것도 부정할 수 없다. (34)

그러나 西獨國民의 意識속에 그것이 젊은 世代이건 舊世代이건 莫論하고 아데나워의 표방이었던 「平和와 自由속에서의 統一 (Wiedervereinigung im Frieden und Freiheit)」이라는 意識이 깊숙히 들어 있는 것을 否定하지는 못한다. 이는 平和와 自由의 定着이 統一의 先行條件이라는 것을 뜻하는 것이다. 그렇기때문에 아데나워의 親西方 및 親美政策이 歡迎받았으며 브란트의 東方政策이 갈채를 받았던 것이다.

오늘날의 國民의 意識이 아데나워때와 다른점이 있다면 그것은 對蘇 힘의 政治는 구식에 不過하다는 것이다.

그것은 오늘날의 흐름인 緊張緩和 조류에 役行할 따름이라는 것이다.

또한 現在의 領土變更政策도 合當하지 않다는 現實을 獨逸國民들

은 잘 알고 있다. 그것은 西歐 自体도 願치 않는 것이며 소련 역시 바라지 않는 政策이기 때문이다. 다시 말하여 보자면 東獨主 導下의 統一이라 할지라도 소련을 위시로 하는 東歐가 願치 않으며 西獨을 主軸으로 하는 全体獨逸을 西方自体도 바라지 않는다는 것이다.

東西 어느 聯盟을 莫論하고 現狀維持政策만을 열망하고 있기 때문에 戰後領土回復政策은 바람직한 政策이 되지 못한다는 것을 獨逸國民은 잘 알고 있다. 이에 逆行은 獨逸國民 安全을 危脅할 뿐이다. 여기에 바로 東西獨平和定着政策 本質性이 存在하는 것이다. 그러함에도 長期的인 統獨政策을 西獨이 樹立하고 이를 繼續 밀고 나가는 理由는 現在의 國際政治情勢가 먼 훗날까지 持續된다는 保障이 없기 때문이라는데 있다. 現在의 國際政治情勢는 오직 훗날 可能할지도 모르는 統一情勢를 위한 그의 前提條件을 改善시키는 것만을 가능케하고 있다. 따라서 東西獨의 平和定着은 統一前提條件을 위한 改善策 또는 向上策에 不過한 것이다. 統獨의 가장 重要한 前提條件은 두말할 여지도 없이 東西兩陣營의 合意 특히 超 強大國인 美蘇의 合意다.

兩大國의 合意를 위한 前提條件이 部分的으로 西獨에 의하여 充 滿되고 있다는 것이 指導層과 國民들의 評價다. 바로 그것은 東

西独의 改善된 平和定着이요, 親美, 親西方 및 브란트의 東方政策이라는 것이다.

東西緊張緩和가 보다 發展되고 東西間의 平和定着이 보다 發展되면 東西間의 利益은 方向을 같이하는 共同利益으로 形成되며 이렇게 될 때는 東西独의 統一이 가까워진다는 것이 西独 支配層의 生覺이다. 따라서 西独의 政策은 보다 發展된 緊張緩和政策이어야 하며 소련을 爲始로하는 東歐共產國家 및 東独과의 經濟交流을 增大하는 것이 西独의 政策이다. 따라서 西独은 헬싱키에서 開催된 歐羅巴安全會議를 全적으로 支持하고 있는 것이다.

第二章 東獨의 平和定着政策

戰後分斷되어 東部地域에서 樹立된 共產 獨逸君主共和國의 歷史的 背景이 西獨의 경우와 같다는 것은 再言을 不必要로 한다. 戰後 東獨의 境遇는 西獨의 경우보다 政治的行動半徑이 좁았다. 그것은 소련이 東獨을 占領하고 있었다는데 기인하고 있다. (35)

이와같은 政治行動權이 협소한 속에서도 소련의 利害에 一致되 는 行動範圍만은 自由 스러웠다. 때문에, 西獨內에 獨逸聯邦共和國 이 樹立됨과 때를 같이 하여 東獨內에 獨逸君主共和國인 共產政權 이 들어선 것이다.

1954 年 3 月에 이르러는 獨立國家임을 表面的으로 宣言하기로 했다.

이는 獨逸問題에 關한 4 大強國 會談이 이렇다할 結果를 맺지 못하고 헤어졌을 때 였다.

1955 年 9 月 以後 부터는 東獨政府가 상당한 政治裁量權을 나타내기 始作했다. 이는 獨逸問題에 對한 蘇聯政策에 反對하기도 하는 東獨政府의 見解가 나타나곤 했기 때문이다.

第 1 節 울브릿트의 政策

西獨이 1955 年 NATO 에 加盟하자 蘇聯은 두개의 獨逸을 宣言했다.

그때 까지만 해도 東獨에 關한 한 蘇聯과의 協商을 통해 해결 했는데 이와같은 두개의 獨逸을 宣言하므로써 東獨과의 直接協商을 하라는 것이었다.

그의 이유로는 東獨이 完全獨立하여 蘇聯과 國家條約을 締結했으며 이에 따라 東獨의 問題는 東獨單獨에 該當되는 것이라고 宣言했기 때문이다.

이어서 東獨의 實權者 울브릿트는 統獨은 國家聯盟의 形態로서만이 가능하다고 말 하면서 東獨이 西方에 편입되거나 또는 東獨의 中立化란 있을 수 없다고 宣言했다. 이것이 바로 두개의 獨逸化하는 첫 거름이 된 것이다. 이후 부터의 울브릿트 政策은 完全한 두개의 獨逸을 만드는 政策 이었으며 東獨을 社會主義化 시키는데 全力을 투구하고 蘇聯에 밀착된 政策을 이끌고 나갔다.

그러므로 그의 政策의 形態와 性質은 다르나 西獨과 마찬가지로 現實主義였음을 否認할 수 없다. 現狀維持政策을 밀고나가는 侵略이란 있을 수 없다. 이점이 바로 北傀의 경우와 本質的인 差

異點을 나타내는 것이다.

東獨의 現狀維持政策은 永久的 이었는데 比하여 西獨의 現狀維持政策은 協商을 통해 戰後領土變更政策이었다. 양자의 공통점은 平和하는데서 찾을 수 있고 差異點은 西獨이 타협을 통해 統一을 원하는데 반하여 東獨은 통일을 願치 않았다는 점이다.

東西獨間에 타협이 成立되지 않는한 平和하는 것만이 남아나게 마련이다.

여기에 바로 같은 分斷國이면서도 平和가 定着할 수 있는 基本이 깔려 있었던 것이다. 어떻든간에 울브릿트는 두개의 獨逸이라는 前提下에 現狀維持政策을 이끌고 나가면서 東獨의 安全을 위한 方策으로서 그의 保護國인 蘇聯과 特別講和條約 (sonder friedensvertrag) 을 締結하려고 努力하였다.

그의 努力이 結果를 맺지는 못했으나 東獨이 바라는 것과 같은 時限附 伯林危機가 1958 年에 發生했던 것이다. 伯林危機의 主目的은 당시 東獨의 事件들이 西伯林에 일자리를 구했거나 또는 구하려 오기 때문에 이로 인하여 西獨으로의 脫出이 급증했기 때문이다. 따라서 울브릿트는 自由通行을 방지키 위하여 自由通路의 封鎖를 위한 조치였다. 이에 西方側이 應하지 않자 울브릿트는

西伯林通行을 규제할 수 있는 條約을 締結하자고 했으며 만일 이에 應하지 않을 경우는 백림장벽을 쌓겠다고 으름장을 놓았다.

이에 西方側이 應하는 경우는 東獨을 實質적으로 認定하는 結果가 되기 때문에 當時의 西方側으로서는 同意할 수 없었던 것이다.

그때 까지만 해도 hips의 政策을 이끌고 나가는 美國으로서는 있을 수 없는 일이 었기 때문이다. 실사 쌍방간의 武力衝突까지의 發展이 없었다 해도 冷戰이 지속되다가 드디어 1961年 8月 을 브릿트는 백림장벽을 쌓고 말았다.

이로서 울브릿트는 그의 立場에서 볼 때 1次的인 政治勝利를 거두었다고 볼 수 있다. 왜냐하면 蘇聯이 이를 옹호했고, 西方側의 強力한(武力에 의한) 저지가 없었고, 장벽으로 인하여 西伯林 脱出口를 封鎖 할 수 있었으며 따라서 東獨이 東獨內에서 그의 政策을 安全히 집행해 나갈 수 있었고 그리고 중국에 가서는 아테나워의 統一政策에 일격을 加할 수 있었기 때문이다.

그러나 울브릿트의 現狀維持 政策이 이로서 완벽하게 된 것은 아니다. 경제력이 강력한 西獨의 統獨政策으로 인하여 東獨內의 不安은 여전히 도사리고 있었기 때문이다.

아테나워의 經濟攻勢는 지속되어 슈레더 의상의 소위 “活動政策”

으로 나타났고 이어서 에르하르트 首相의 平和攻勢가 뒤를 이었기 때문이다.

에르하르트 首相은 1966年 3月 全世界에 보내는 메시지를 통해 武力行使拋棄를 宣言했다. 이에 대하여 東獨은 東獨을 侵略하려는 宣戰布告라고 非難했던 것이다. (36)

또한 울브릿트는 西獨의 키싱거-브란트 大聯政의 東方政策에 不安을 느끼기도 했다. 大聯政의 東方政策은 東西間의 緊張을 緩和하자는 것이었고 이로 인하여 西獨과 東歐共產國과의 親交가 이루어지면 西獨이 主張하는 領土變更原則이 빛을 볼지도 모르기 때문이었다. 따라서 東獨은 이를 가장 위험한 侵略方法이라고 非難했다. 울브릿트는 브란트의 東方政策 역시 危險하다고 생각했다. 브란트의 東方政策으로 인하여 西獨과 蘇聯의 親交가 두터워지는 경우는 蘇聯이 그의 利益을 위해 東獨을 犠牲시킬지도 모른다고 判斷했기 때문이다.

이와같은 울브릿트의 不安은 親蘇政策에 促進的인 작용을 한 것이다. 이어서 西獨의 할슈타인 原則에 強力한 反旗를 들었고 蘇聯과 成功치 못한 特別講和條約 대신 友好條約 및 同盟條約을 1964年 締結했던 것이다.

同盟條約에 따르면 東獨의 國境을 20年間 保障한다는 것과 東西獨 國境問題는 東西獨政府의 問題라고 뜻을 박았다. 이 條約으로 인하여 東獨의 安全은 상당히 保障을 받았고 東歐 共產블럭內에서 상당한 地位를 確保하게 된 것이다.

1967年에 이르러 東獨은 西獨이 東獨을 認定치 않는한 東歐의 어떤 國家도 西獨과 國交關係를 맺지 않는다는 保障을 받아 슈레더의 “活動政策”에 새기를 박기도 했다. (37) 백림장벽의 成功은 東獨經濟發展에 至大한 공헌을 했다.

이로서 울브릿트는 東獨內에 強力한 共產國家를 건설할 수 있었으며 東歐共產國家內에서 표본적인 國家로 치솟기도 했다. 이상의 것이 울브릿트의 1971年 까지의 政策이었던 것이다.

울브릿트 역시 東獨의 經濟建設後에 本格的으로 할슈타인 原則에 도전하면서 東歐에 영향력을 가할 수 있었다는 것이 西獨과 유사하다. 蘇聯과의 關係에서 볼 때 울브릿트는 위성 關係라기 보다는 아우(弟)적인 (Junior-Partner) 役割을 했다는 것이 西獨의 評이다. (38) 이와같은 評이 나올 수 있었던 背景은 東獨이 어느 東歐內의 共產國家보다도 밀접한 親蘇政策을 밀고 나갔으며 憲法規定 속에도 蘇聯共產路線에 따른다는 明文까지 있었기 때문이다.

올브리트트는 두개의 獨逸國家를 宣稱하고 이에 대한 政策을 시행했 으면서도 어느때가는 赤化統一을 이루겠다고 宣稱했다. 이는 共產 輸出原則에 따른 것이나 「어느때가」라는 단서가 붙어 있기 때문 에 西獨에 대한 現實的인 危機는 하나도 없었고 가까운 장래에도 없을 것으로 본다.

이와같은 原則에 따라 올브리트트는 西獨이 東方政策(브란트)의 첫 結果로서 蘇聯과 함께 1970年 8月 모스크바 條約을 締結했 을 때 반발하였다. (39)

■ 후 이는 곧 실각되었고 호네커가 그의 뒤를 이었다. 호네커 는 蘇聯의 利害가 東獨利害에 우선한다고 宣稱하면서 올브리트트의 반발을 非難했다. (40)

이로서 東獨은 絶對的인 親蘇政策을 밀고 나가고 있는 것이다.

第 2 節 東部獨逸의 国力

백립장벽이 후 東獨은 東歐 共產國家內에서 뿐만 아니라 全世界에서 상당한 工業國家로 發展했으며 西獨보다도 海外貿易 依存度가 強하 다. 60年度 부터 급속도로 발달된 東獨의 工產品 海外輸出은 第 3 世界等 非社會主義國에 영향을 주어 政治的 發言을 굳히고 있는

実情이다. 그러나 國家權力行使能力은 西独보다도 弱한 처지이다.

이는 蘇聯과의 關係때문에 불가피한 結果다.

東独이 무장을 하고 있으나 自体軍事力보다도 瓦르샤워에 加盟되어 있다는 점과 作戰權이 蘇聯에 있다는 점을 볼 때 西独과 유사성을 갖고 있다. 東独의 産業이 發達하여 그의 工產品이 활기를 띄며 輸出되고 있다하나 西独의 절반에 미치지 못하므로 西独처럼 經濟力을 바탕으로 하는 国力과시도 어렵다.

東独政策에서 가장 重要한 것은 領土 不可侵性과 体制不可侵性이다. 이를 위하여 東独은 蘇聯을 위시하여 東歐共產國과 밀접한 關係를 맺고 있다. 맹방과의 關係에서 볼 때 西独보다도 심화된 점은 東独의 安全을 위하여는 東独 스스로의 利益을 犧牲시키면서까지도 蘇聯과 밀접한 關係를 맺을 준비가 되어 있다는 점이다. 따라서 蘇聯 및 盟邦의 利益이 무엇 보다도 우선한다고 울브릿트가 力說하고 있다. (41)

東独 역시 西独의 爲政者들과 마찬가지로 3次大戰이 발발할 경우는 戰爭 当事國인 美國이나 蘇聯에 앞서 東独이 犧牲될 것이라는 것을 잘 알고 있다. 그것은 最後의 勝利가 蘇聯에 있건 없건 必然的인 結果라는 것이다. 따라서 東独 역시 緊張緩和政策

에 絶對的인 關心을 갖고 있는 것이다. 여기에 바로 東西獨이 平和定着할 수 있는 決定的인 政治要素가 있는 것이다. 이와같은 理由에서 東獨이 蘇聯의 平和共存政策을 積極支持하고 있는 것이다. 따라서 東獨이 백림위기 등을 야기시키면서도 武力衝突까지는 이끌고 가지 않으며 오히려 事前에 予防하고 있는 實情이다. (42)

또한 이외에는 領土不變更原則을 유지시키고 政權의 安定을 존속하기 위해서도 平和定着이 必要하기도 하다. 즉 東獨이 平和定着을 위해 努力하는 理由는 크게 나누어 두가지로 집약할 수 있다.

①緊張緩和政策과, ②領土不變更原則이다.

西獨과의 決定的인 差異點은 두개의 獨逸論일 뿐이다. 바로 이 두개의 獨逸論의 成就를 위하여 東西獨間의 往來를 방해하고 통행을 방해하는 것이지 西獨을 侵略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는 것이 특이한 점이다. 東西獨往來나 自由通行은 西獨의 合併主義에 一致된다고 생각하고 있기 때문이다.

東西獨 通行 및 訪問關係도 東西獨基本條約締結 以後 상당히 緩和되었다. 그것은 同條約이 兩獨의 主權을 존중한다고 되어 있으므로 暫定的인 두 獨逸이 존재 可能토록 했기 때문이다. 또한 이외에도 브란트의 東方政策이 領土不變更原則에 積極的으로 도전

하지 않는다는 政策을 樹立했기 때문이다. 따라서 오늘의 東獨政
府의 과제 두 獨逸을 定着시키는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東獨을
전통적인 獨逸에서 完全獨立된 共產國家라는 理念을 東獨國民에게
強要하고 있으며 一民族二國家 (Eine Nation Zwei Staaten) 라는
西獨의 理論을 반격하는데 總力을 기울이고 있다. (43)

앞에서 간단히 지적한 바 있으나 東獨이 西獨도 共產化된다면 統
一시킬 意思가 있는 것만은 分明하다. 共產革命 輸出이라는 共產
理念 때문이다. 그러나 北韓의 경우와 明確한 差異點이 나타나는
것은 理念의 統一은 바라나 西獨을 東獨에 편입시킬 意思가 없
는 점이다. 그의 理由로서는 全獨이 統一될 경우는 힘의 均衡이
깨져 共產社會主義團結을 危脅할 것이라는데 있다. 또 다른 理由
는 西部獨逸人들을 統治할 能力이 없다는 것이다. 다만 오늘날
東歐 共產國家와의 關係처럼 社會主義의 團結만을 바라고 있다.

그러나 이와같은 것을 東獨 共產主義者들이 公共然하게 力說하고
있는 것은 아니다. 西獨의 知識人들이 이와같이 分析하고 있을
뿐이다.

第三章 東西獨關係의 展望

東西獨의 어느 政權을 막론하고 그들의 最大課題가 領土現狀維持 政策이다. 이는 現体制의 安定과 平和를 부수적으로 수반한다.

따라서 東西獨의 平和定着은 어느 一方的侵略政策이 없기 때문에 앞으로도 지속될 것이다. 이런 상태하에서 領土現狀維持 政策을 지속키 위하여 西獨은 親西方 그리고 東獨은 親蘇政策을 계속 確固하게 밀고 나갈 것이다.

東西獨基本條約에 따라 相互 계속적인 非政治分野의 去來가 지속될 것이다. 西獨도 東獨도 그의 目的은 다르나 非政治分野의 去來가 自己利益이 된다는 共同利益을 追求해 나갈 것이기 때문이다.

東西獨 어느 쪽이건 非政治的分野의 去來를 自己体制의 利益으로 利用하여 相對에 타격을 가한다면 東西獨의 平和定着은 파괴될 것이다. 그러나 사소한 東西獨間의 政治的 論爭이나 對立으로 인하여 양獨의 平和定着이 깨질 것이라고는 보지 않는다. 現狀態의 平和定着의 利益이 相互關係 完全封鎖보다는 利益이라고 두 獨逸의 政權者들이 생각하고 있기 때문이다.

여기에 바로 東西獨의 平和定着이 지속될 수 있는 근거가 있는 것이다.

第四章 南北韓의 平和定着

1970年 8月 15日 朴正熙大統領이 祖國의 平和統一을 위한 接近方法을 宣言하기 전까지는 이렇다 할 平和定着이 南北韓에 없었다 해도 지나친 말은 아니다. 北傀의 괴비린내 나는 6.25 南侵以後 있었던 李政權의 政策 역시 平和定着政策이라기 보다는 北進을 통한 統一政策이었다. 明確한 事實은 李承晩大統領 時代였던 朴正熙 現大統領 時代였던 南北韓에 平和定着이 이루어지지 못한 理由와 責任은 北傀의 호시탐탐한 武力南侵 態度 때문이다.

世界史에 那類例를 찾기 힘든 6.25의 南侵을 저지하는 方法은 오로지 北進밖에 없었다. 따라서 李政權時代의 北進統一 政策은 그 當代에 適節한 方策이 아닐 수 없다. 1953年 休戰이 이루어진 以後에도 北傀의 끝없는 挑發로 인하여 끝없는 戰雲이 감돌았다. 따라서 緊張緩和와는 거리가 먼 戰爭再發 防止策이 急先務였던 것이다. 平和의 定着은 緊張緩和狀態를 前提로 한다.

戰爭再發防止를 해야 하는 상태에서는 緊張緩和란 있을 수 없으며 오로지 紛爭緩和만이 있을 따름이다. 그러나 조금도 수그러질 줄 모르는 北傀의 南侵態度에는 紛爭緩和政策을 밀고 나갈 수 없

있으며 紛争緩和政策 밖에 있을 수 없었다. 紛争緩和란 紛争의 強度와 回数가 점차적으로 감소되어 갈 때만이 可能한데 비하여 紛争防止는 紛争의 差度없는 狀態에서 正面武力衝突만을 防止하는 것을 뜻한다. 따라서 紛争防止→紛争緩和→緊張緩和의 里程表가 있는데 休戰以後의 南北韓의 關係는 紛争防止狀態만이 지속되었을 뿐이다. 이런 狀態下에서의 李承晩大統領의 北進統一政策은 當然했다.

따라서 이때까지 南北韓에 平和가 定着할 수 없었던 것은 當然한 귀결이었다. 李大統領이 北進統一을 主張했다 해도 그것이 侵略政策으로 評價받을 수 없다.

國軍의 作戰權이 U N司에 있었으며 U N司의 作戰權을 한번도 철회시키려고 努力한 적도 없었기 때문이다.

U N軍의 大韓民國 駐屯이 戰爭再發防止의 性格을 갖고 있다는 것은 再論을 不必要로 한다. 이와같은 U N산하에 國軍의 作戰權이 부여되어 있다는 것이 바로 戰爭再發予防策이라는 結論을 可能케 한다. 이외에도 休戰協定違反이 李政權에 의하여 挑發된 적이 없다는 것은 戰爭再發防止政策이었다는 것을 立証하고도 남는다. 따라서 北進統一이란 말은 予防의 뜻 以上の 것이 될 수 없다.

60年代에 들어와서 國際政治潮流는 東西間의 解氷時代로 突入했다. 이를 주시한 朴大統領은 70年 8月 15日 歴史的인 8.15 宣言을 했다.

紛争防止政策에서 紛争緩和를 경중되어 緊張緩和를 熱望하는 平和定着政策의 始発이었다. 이어서 다음해 8月 12日의 南北赤十字會談 그리고 7.4 共同聲明이 發表되었다.

紛争予防狀態에서 平和定着의 기미가 보이는 緊張緩和로의 突變에 世界는 놀라지 않았다. 71年 8月 12日 南北赤十字會談을 提議한 以後 73年 7月 10日 까지의 약 2年間에 걸친 期間동안 南北韓에 平和가 定着되는듯 했다. 그러나 이 期間동안도 역시 北傀는 休戰線地域에 땅굴을 구축하는등 偽裝平和攻勢를 감행하고 만 것이다. 北傀의 偽裝平和攻勢는 이때가 처음인 것이 아니다. 일찌기 6.25 南侵을 감행하기 전부터 있었다.

1948年 9月 10日 共產政權을 樹立한 후부터 그들의 統一方案에 偽裝된 平和攻勢가 나타나기 始作했으며 6.25를 不過 18日 앞둔 1950年 6月 7日에는 「平和統一 呼訴文」이라는 것을 發表하면서 偽裝平和攻勢의 絶頂을 장식했다. 따라서 分斷 以後 오늘에 이르기 까지 北傀의 態度는 平和定着을 拒否하고 있는 것이

다. 8.15 宣言以後 大韓民國政府는 꾸준히 平和定着을 위한 方策으로서 南北赤十字會談提議, 7.4 共同聲明, 6.23 宣言, 南北韓 相互不可侵協定提議 및 平和統一 3大原則等を 發表했으나 北傀는 끝까지 外面하고 있다.

이와같은 大韓民國政府의 平和政策에 버금가는 北傀의 反應이 있어야만 緊張緩和 속에서 平和定着이 있을 수 있으나 그렇지가 못하기 때문에 平和定着이 없고 紛爭防止策만이 있을 뿐이다. 上記 大韓民國의 平和統一政策等은 따라서 平和定着에 기여되지 못하고 그의 進단계인 戰爭再發防止 또는 紛爭防止政策에만 有益하고 있을 뿐이다. 特히나 美國의 카터政府가 들어선 以後부터 美軍撤退 기미가 보이자 이를 好機會라고 여긴 北傀는 南北韓의 平和定着을 拒否하고 南侵의 機會를 노리고 있을 뿐이다.

第五章 南北韓과 東西獨과의 比較評價

戰後 分斷된 두개의 國家, 즉 南北韓과 東西獨은 그 國家의 最大目標가 統一成就라는 데서 共通點을 求할 수 있다. 實사 東獨이 두개의 獨逸論을 집요하게 이끌고 나가고 있으나 역시 統一을 完全拒否하는 것만은 아니기 때문이다. 여기에서 差異點을 求하자면 東獨이 두개의 獨逸論의 定着이 우선이며 그후 어느편가 統一할 수도 있다는 統一意志의 微弱性을 내포하고 있다는 점이다.

南北韓과 東西獨間의 關係는 첫 出發부터 다르다. 東西獨은 戰後 4大強國인 美蘇英仏의 共同責任下에 놓여 있는데 비하여 南北韓은 美蘇가 各己 駐屯地域에 한하여 責任을 졌다.

4大強國의 共同責任下에 있는 東西獨은 따라서 처음부터 非政治的分野의 交流를 可能케 했으며 이로 인하여 平和定着의 出發을 용이하게 했다.

처음부터 東西獨間의 經濟交流가 있었던 것이 드디어 1951年 9月 19日에는 經濟交流를 內容으로 하는 內國地域協定 (Interzonenabkommen) 이 締結되기 까지 했다.

東西獨과 南北韓間的 또다른 共通點은 各己體制의 安全을 爲해 同盟國과 긴밀한 關係를 맺었다는 점이다.

체제의 安全이란 Status Quo 政策 즉 領土現狀維持政策을 뜻한다.

그러나 北傀는 領土現狀維持政策以後 다시 말하여 보자면 體制安定以後 領土擴大政策을 폈다. 그것이 바로 6.25 南侵인 것이다. 이와같은 領土擴大主義에는 平和定着이 不可能하다.

東獨은 領土現狀維持政策을 至上最大의 目標로 삼고 있기 때문에 西獨에 대한 挑發이 없었다.

領土擴大主義를 原則으로 삼고 있는 北傀는 지속적인 挑發을 감행하고 있다.

따라서 외관상 平和政策이라 하더라도 領土擴大主義때문에 偽裝平和攻勢일 수 밖에 없다.

伯林危機, 國境紛爭 등의 危機가 東獨에 의하여 유발되었다는 점을 볼 때 北傀의 挑發과 유사성을 갖고 있다.

그러나 北傀는 領土擴大를 위한 侵略性을 띠고 있는데 비하여 東獨의 경우는 西獨이 東獨과의 直接協商拒否, 東歐共產國家와의 親交努力 또는 蘇聯과의 經濟協力努力 등을 함으로써 東獨의 孤立을

두려워한 나머지 이와같은 西独의 攻勢를 저지키 위한 方法이었기 때문에 그의 性格을 完全히 달리한다.

즉 東独의 위기조성은 東西独의 共存을 위한 平和定着이었는데 비하여 北傀의 경우는 赤化統一을 위한 武力行使였다는 점에 그의 差異點이 있다는 것이다. 朴大統領의 8.15 宣言, 南北赤十字會談, 6.23 宣言, 平和統一 3大原則 등은 平和定着을 위한 브란트 以後의 東方政策과 유사하다.

그러나 우리 大韓民國의 이러한 政策은 西独의 경우처럼 平和定着의 成果를 가져오지 못하고 南北韓의 紛爭防止의 一部 役割밖에 못하고 있다고 評할 수 있다.

政策의 方法과 手段이 東西独의 경우와 유사하면서도 그의 結果가 다른 理由는 두가지로 집약할 수 있다.

첫째는 北傀의 好戰的 侵略性 때문이다.

두째는 西独처럼 北傀의 宗主國인 蘇聯과 中共이 이에 積極 호응해 오지 않기 때문이다.

北傀가 南北韓의 平和共存을 願치 않고 계속적으로 侵略에 의한 赤化統一에 집착하는 한 平和定着은 어려운 것이다. 엄격한 意味에서 볼 때 大韓民國 역시 自由民主主義의 原則에 의해서만 統一하

겠다고 할 때는 역시 侵略이 아니냐는 의문이 나올만도 하다.

그러나 侵略이란 相對意思에 反하는 強圧的領土變更인데 비하여 自由民主主義의 原則이란 協商에 의한 領土變更을 뜻하는 것이기 때문에 侵略이 될 수 없다. 단계적 統一方案이란 이와같은 協商을 통한 統一方案을 말하는 것이다. 이는 西獨의 統一方案과 같은 것으로서 먼저 平和定着을 요하는 것이다. 따라서 東西獨에는 平和定着이 可能하나 南北韓에는 平和定着이 不可能한 理由가 北傀의 侵略性 때문이다.

北傀의 好戰性이 東獨과 비교할 때 얼마나 큰 차이가 있는가는 지난 1976年 10月初 東獨의 軍事代表團이 평양을 방문했을 때 그들과 주고 받은 面談內容에서 충분히 찾을 수 있다.

東獨의 軍事代表團에게 金日成이 「우리의 統一努力을 열렬히 支持해 준데 대해 東獨國民과 政府에 感謝한다」고 했다. 이에 대해 東獨의 黨機關紙 Neues Deutschland는 자세한 內容 報道를 기피하면서 다만 「東獨에게 감사했다」고 짧막히 報道했다. 즉 北傀의 侵略的인 統一方案을 支持한 적이 없다는 것으로 西獨에서는 풀이하고 있다. (45)

더욱 뚜렷한 것은 金日成이가 여러번 말한 「平和統一」이란 말

을 단 한구절도 東独의 党機關紙가 報道하지 않았다는 점이다.

이는 東独 역시 金日成이가 말하는 「平和」라는 말은 領土擴張을 위한 侵略이기 때문에 東独의 「平和」라는 어휘에 該當되지 않는다는 의도에서 東独의 党機關紙가 報道를 기피한 것으로 풀이할 수 있을 것이다.

註

- 1) Helmuth Pressner; Die Verspötete Nation, "Über die politische Verführbarkeit des bürgerlichen Geistes", S. 58ff.
4 Auflage; Stuttgart. 1959.
- 2) Altmann, Zum Problem der Wiedervereinigung, Ansichten und Einsichten, Hamburg, 1966, S. 185ff.
- 3) Max Weber, Der Nationalstaat und die Volkswirtschaftspolitik, In; Gesammelte politische Schriften, Tübingen, 1958, S. 23.
- 4) Annelise Thimme, Gustav Stresmann, Legende und Wirklichkeit, In; Historische Zeitschrift, Jahrg. 181, 1956, S. 287ff.
- 5) Stresemann, Republikaner aus Vernunft, Berlin, 1968. S. 82ff.
- 6) Schwarz, Die Analyse, S. 109ff.
- 7) Die Auswärtige Politik, Dok, 53. S, 262-266.
- 8) Hans Buchheim, Konrad Adenauer, Ziele und Wege, 1972, S. 92f.
- 9) Konrad Adenauer, Erinnerungen II, 1953-1955. S. 423.
- 10) Deutschland Archiv 1976. 12. S. 1326; 1977. 3. S.266f.
- 11) Konrad Adenauer, II. S. 210.
- 12) Konrad Adenauer, II. S. 268.
- 13) Konrad Adenauer, II. S. 267.

- 14) Hans-Adolf Jacobsen; Konzeptionen deutscher Ostpolitik
1919-1970, in; Aus Politik und Zeitgeschichte, Beilage
zur Wochenzeitung Das Parlament, B. 49/1970, S. 18.
- 15) Karl Kaiser, German Foreign Policy in Transition, Bonn
between East and West, 1968, S. 76.
- 16) Heinrich, Internationale Dimensionen des innerdeutschen
Konflikts, 1949-1972, Köln 1973, S. 196ff.
- 17) Konrad-Adenauer, II. S. 437ff. III. S. 31-61, S. 92-103.
- 18) K. Adenauer, II. S. 437ff.
- 19) K. Adenauer, II., S. 472.
- 20) Dokumente zur Deutschlandpolitik, III/3. (1957) S. 297-315.
- 21) K. Adenauer, II. S. 357.
- 22) Adenauer Studien, III. S. 142.
- 23) Konrad Adenauer, III. S. 369.
- 24) Dieter Dettke; Der Westen und die Bundesrepublik Deutsch-
land, in; Außenpolitische Perspektiven des Westdeut-
schen Staates, Bd. 3. 1972. S. 19.
- 25) Deutschland Archiv, 1973. 8. S. 862ff.
- 26) Deutschland Archiv, 1976. 12. S. 1324ff.
- 27) Christian Hacke, Die Ost- und Deutschlandpolitik der CDU
und CSU, Wege und Irrwege der Opposition seit 1969,
1975, S. 77ff.

- 28) Der Spiegel. Nr. 1-2/1975. S. 24.
- 29) Karl Kaiser; Die Bundesrepublik Deutschland zwischen Frankreich und den Vereinigten Staaten, In; Europa Archiv 12/1974. S. 391.
- 30) Eberhard Schulz; Wahrung des Friedens, in; Aussenpolitische Perspektiven des westdeutschen Staates, Bd.1. S. 23.
- 31) Richard Löwenthal; Freiheit der Eigenentwicklung. in; Aussenpolitische Perspektiven, Bd.1. S. 12.
- 32) Hans R. Krämer; Konjunktur und Währungspolitik, in; Aussenpolitische Perspektiven, Bd. 3, S. 162-166.
- 33) Dietrich Keschul und Karl Wolfgang Menck; Die Entwicklungsländer in den Aussenbeziehungen der BRD, in; Aussenpolitische Perspektiven, Bd.3. S. 201-212.
- 34) Siegfried Kupper; Politische Aspekte des innerdeutschen Handels. in; C.D. Ehlermann, S. Kupper, u.a. Handelspartner DDR-Innerdeutsche Wirtschaftsbeziehungen, Baden-Baden 1975, S. 75.
- 35) Claus-Dieter Ehlermann; Innerdeutsche Wirtschaftsbeziehungen und Europäische Gemeinschaft, in; C.D. Ehlermann u.a. Handelspartner DDR, S. 205-258f.

- 36) Lutz Niethammer und Ulrich Borsdorf; Traditionen und Perspektiven der Nationalstaatlichkeit, in; Aussenpolitische Perspektiven, Bd. 2. S. 58-72.
- 37) Wolfgang Pfeiler, DDR-Lehrbuch, Bonn 1974. S. 23-45.
- 38) Dokumentation zur Deutschlandfrage, Bd. IV, S. 139f.
- 39) 루마니아가 1967年 西独과 外交關係를 樹立한 것은 例外.
- 40) Ernst Richert; Zwischen Eigenständigkeit und Dependenz,
Zur Wechselwirkung von Gesellschafts und Aussenpolitik
in der DDR, in; Deutschland Archiv, Nr. 9/1974 S. 958.
- 41) 1971年 4月 蘇聯共産党 全党대회 (第24次) 에서 울브릿트는 蘇聯과의 友好關係에는 變함이 없고 蘇聯의 계속적인 保護를 希望한다고 하면서 社会主義組織과 兄弟同盟에게 해야 할 義務를 지켜야 한다고 力說했다.
- 42) Ilse Spittmann, 25 Jahre DDR Ihr Platz im Sowjetsystem.
in; Deutschland Archiv, Nr. 11/1974. S. 1125.
- 43) Erich Honecker, Schlußwort auf der 12 Tagung des ZK des SED. Deutschland-Archiv, Nr. 9/1974. S. 995.
- 44) Deutschland-Archiv, Nr. 9/1974, S. 996.
- 45) Erich Honecker, Bericht des ersten Sekretörs des ZK der SED an die Tagung des ZK. in; Neues Deutschland vom 13, 12, 1974.

- 46) Hanz-Adolf, Jacobsen; Gesamteuropäische Kooperation 1970-
1973-Versuch einer Zwischenbilanz. in; Aus Politik
und Zeitgeschichte. Beilage zur Wochenzeitung Das
Palament, Nr. B36/1973. S. 6.
- 47) Deutschland Archiv, 1/1977. S. 42.

要 約 文

東西獨의 平和定着이 可能했던 것은 戰後分斷된 領土를 暫定的으로 變更시키지 않겠다는 두 獨逸政府의 政策때문이었다. 東西獨은 分斷이 長期化할 것이라고 처음부터 내다 보았다.

따라서 統一政策을 長期的眼目에서 樹立했다. 統一政策이 長期的眼目에서 樹立되었다는 말은 統一與件이 國內外的으로 성숙되었을 때에 비로서 統一을 成就시키겠다는 것이며 여건이 성숙되기까지의 空白期間內에는 分斷狀態 그대로의 領土現狀維持政策을 樹立해야 한다는 것이었다.

그러지 않고 단시일내에 統一을 成就하려고 할 때는 武力衝突을 不可避하게 할 우려가 있기 때문이다.

武力衝突은 敗戰한 獨逸을 또다시 戰禍危險 속으로 몰고 갈 염려가 있다.

이를 避하기 위한 政策이 長期的眼目的 統一政策이며 그때까지의 平和共存이다. 이러한 나머지 아데나워는 先 平和→自由, 그후 統一이란 原則을 세운 것이다. 平和維持를 위해 西獨의 安全이 急

先務였다. 따라서 어느 누구에도 挑發行爲를 하지 않는다는 原則을 樹立했고 親西方政策을 밀고 나갔다.

東獨 역시 存立을 위해 親蘇政策밖에 없다고 判斷했다.

이는 獨逸의 過去史 즉 1, 2次世界大戰이 教訓이 되기도 했다.

1, 2次大戰의 敗亡이 孤立主義에 기인했다고 두 獨逸의 指導者들이 判斷했기 때문이다. 또한 이외에도 獨逸이 戰後 富強하다 해도 2次大戰後 成長한 초강대국인 美蘇와 對立할 程度의 国力이 배양될 수 없다는 생각 때문이다.

国力의 過信은 1, 2次大戰의 쓰린 經驗外에 아무 것도 없다는 教訓이 철저히 뒷 받침한 것이다.

아데나워는 親美政策과 병행하여 親西歐政策 나아가서 歐羅巴統合政策을 밀고 나갔다. 歐羅巴에 平和定着을 위해서는 歐羅巴가 統合되지 않고는 不安하다는 데서 나온 것이다.

초강대국인 美蘇에게는 歐羅巴의 어느 單一 國家도 對抗할 国力을 갖출 수 없기 때문이라는 것이 아데나워의 歐羅巴統合政策이었다.

두 獨逸은 이와같이 各己의 盟邦과 밀접한 關係를 맺으면서 領土現狀維持政策을 밀고 나갔다.

따라서 東獨은 西獨으로부터의 侵略危脅을 받지 않았으며 또한 西獨 역시 同一했다. 이러한 政策 즉 領土現狀維持政策이 兩獨 逸의 平和定着을 可能케 했다. 東西獨은 領土現狀維持政策을 뚜렷이 對外的으로 알리기 위해 自國軍隊의 作戰權을 各己 軍事同盟體에 委任했다. 즉 西獨은 NATO 에 東獨은 瓦르샤워 軍事同盟體에 作戰權을 위임한 것이었다.

60 年代에 들어와서 世界情勢의 潮流가 緊張緩和로 變하자 西獨은 이에 발 맞추어 브란트의 東方政策이 推進 되었다. 緊張緩和는 兩獨逸이 絶對적으로 必要하다고 느끼고 있다.

그의 理由는 親美, 親蘇政策으로 兩獨逸의 安全이 保障받고 있으나 美蘇의 武力衝突로 인한 第3次世界大戰이 있는 경우는 美蘇에 앞서 東西獨이 초토화 된다는 것이다. 最後의 勝利가 어느편에 있건 關係없이 東西獨全域이 第1次的인 前線이 되기 때문이라는 것이다. 따라서 東西獨은 美蘇의 利益에 앞서 東西獨의 利害를 위해 緊張緩和가 되어야 하며 그렇기 때문에 브란트의 東方政策이 必要했다는 것이다.

東獨에 의하여 挑發된 伯林危機等이 東西獨間의 平和定着에 암적 요소가 될 수도 있었다. 그러나 東獨의 危機造成이 아데나워의

經濟政策, 東独孤立化 政策때문에 東独의 領土現狀維持政策이 危脅받
는 데서 기인된 것이었다고 西独의 領土現狀維持政策을 危脅하는
侵略手段이 아니었기 때문에 그리 큰 저해요소로 부각되지 않았던
것이다.

西独은 領土現狀維持를 바탕으로 하는 領土變更政策을 이끌고 나
가고 있다. 領土現狀變更政策이 바로 東西独統一政策인 것이다.
이는 經濟復興後에 平和가 定着되었다고 判斷하고 나온 政策이다.
이러한 西独政策에 대하여 東独은 領土現狀維持政策에 違背되는 侵
略政策이라고 非難하고 있는 것이다.

이에 대해 西独은 侵略政策이란 意思에 反해(즉 武力行使 등)
領土를 擴大하겠다는 政策을 뜻하는 것이며 兩独國民의 타협에 의
한 領土變更政策은 侵略이 될 수 없다고 応酬하고 있다.

타협에 의한 領土變更政策을 樹立하고 있는 것이 西独이므로 타
협이 될 수 있는 여건을 造成키 위해 東西緊張緩和, 東西独間의
非政治分野交流를 西独이 積極推進하고 있다. 東独은 初期에 長期
的統一方案을 樹立시켰다가 두개의 独逸論이 나와 西独의 統一政策
에 反對하고 있다.

그러면서도 東西独基本條約以後 非政治分野의 交流를 擴大시키고

있는 理由는 첫째 西独이 단시일내에 侵略하지 않을 것이라는 것, 둘째 西独과의 經濟交流가 東独經濟發展에 絶對的 役割을 한다는 判斷 때문이다.

여기에 바로 두 独逸의 平和定着이 可能한 理由가 있는 것이다.

南北韓의 경우는 北傀가 意思에 反하는 領土擴大政策 즉 赤化武力統一을 처음부터 오늘까지 또는 앞으로도 밀고 나갈 것이 예상되기 때문에 어떠한 大韓民國의 努力도 平和定着에 기여 못하고 있는 것이다. 여기에 南北韓과 東西獨의 平和定着의 差異가 있는 것이다.

우리 大韓民國의 여러가지 平和政策은 다만 南北韓의 武力再衝突防止 즉 紛争防止에만 기여하고 있을 뿐 平和定着을 위한 紛争緩和, 나아가서 다음 단계인 緊張緩和에는 도움이 되지 못하고 있다.

